

○ 光藝三十三 — KOB A 2025를 찬미하며 ○

글·한시 윤호 이진호

㉹ 빛과 예술이 기술을 만나 하늘로 날아옵니다. ㉹

2025년 5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3회 KOB A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KOB A는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산업의 전문 기술 전시회로, 1991년 辛未년(신미년)에 첫 회를 열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33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진화를 상징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KOB A는 오늘날 30여 개국, 9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KOB A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Enhanced Creativity
: The Next Wave of Media Innovation ㉹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기술이 창조성과 만나 예술로 승화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고전시 형식인 칠언절구 한시(七言絶句)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전통 한시는 짧지만 깊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28자의 제한된 시어 속에 역사, 정서, 흐름, 상징을 담은 이 시형은 오늘날의 기술 진보를 오히려 더 명징하게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光藝三十三(광예삼십삼)

辛未初燈照四方 (신미초등조사방)

신미년(1991년)에 처음 밝혀진 등불이 사방을 비추고,

聲光雲集首爾場 (성광운집수이장)

소리와 빛은 서울 전시장에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智能幻化乘風速 (지능환화승풍속)

지능은 환상을 현실로 바꾸며 바람을 타고 빠르게 솟아오르고,

放技飛騰耀世光 (방기비등요세광)

방송기술은 하늘로 날아올라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됩니다.

❖ 시격과 운을 분석

이 시는 전통적인 칠언절구 가운데 측기식(仄起式)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1·2·4구의 마지막 글자인 ‘方(방)’, ‘場(장)’, ‘光(광)’은 모두 陽韻(양운) 계열로, 전통적인 압운 규칙을 완벽히 따릅니다.

또한 각 구절은 전통 작시법에 맞춘 성조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운율적으로도 3·4·5자 구간에서 성조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고전시에서 금기되는 평고(平孤), 측고(仄孤) 없이 완성된 형태입니다.

❖ 구절별 해석과 상징

1구 : 辛未初燈照四方

- 신미년의 첫 불빛이 사방을 밝힙니다.
- 1991년 KOBA 전시회의 시작을 등불로 비유하며 기술적 비전의 출발을 상징합니다.

2구 : 聲光雲集首爾場

- 소리와 빛이 서울 전시장에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 전 세계의 방송·음향·조명 기술이 서울로 모여드는 KOBA의 위상을 표현합니다.

3구 : 智能幻化乘風速

- 고도의 기술 발전이 환상을 현실로 바꾸며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갑니다.
- AI, XR, AR 등의 기술이 창조성에 접속하며 산업을 혁신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4구 : 放技飛騰耀世光

- 방송기술이 비상하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 기술이 문화가 되어 세계를 비추는 KOBA의 미래 비전을 선언합니다.

KOBA는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닙니다

KOBA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기술적 진보를 넘어 창조적 표현과 문화의 흐름을 이끄는 플랫폼입니다. 33년간 쌓인 이 플랫폼은 기술과 감성, 산업과 예술이 서로를 자극하고 진화해 온 ‘문화 기술의 축제’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그 흐름을 기억하고 축적하는 일은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전통 한시는 오래된 형식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의 이야기와 내일의 상상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KOBA 2025는 단순한 33번째 전시회가 아닌, 기술의 도약과 문화의 비전이 교차하는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이 한시와 해설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작은 울림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글·한시 윤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